

삼성전자, 야구장 ‘갤럭시 체험존’으로 소비자 점점 확대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갤럭시 홈런존’
KT 위즈파크, ‘체험·셀피존’ 운영
잠실야구장에 폴드7 포토존 만들어
각 구장서 ‘승요셀피’ 프로그램 등 진행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을 앞세워 국내 프로야구 팬들과 만난다.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두산 베어스 등 3개 구단과 함께 신제품 체험형 마케팅을 진행하며 소비자 점점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정규 시즌 기간 동안 야구장 내 갤럭시 체험존과 이벤트 좌석을 운영하며 폴더블폰의 초슬림 디자인, 고성능 카메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는 폴드7이 설치된 전용 루프탑 좌석과 ‘갤럭시



삼성전자는 정규 시즌 기간 동안 야구장 내 갤럭시 체험존을 운영한다. 위 사진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Z 플립7’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마스코트 ‘블레오’와 함께 ‘승요 셀피’를 촬영하는 모습.

/삼성전자

홈런존’이 마련됐다. 관람객은 폴드7 대화면으로 실시간 중계를 감상하거나, 스마트폰과의 화질 비교 체험, 고화소 카메라 인종상 촬영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홈런존에서는 경기 중 홈런이

터질 경우 추첨을 통해 폴드7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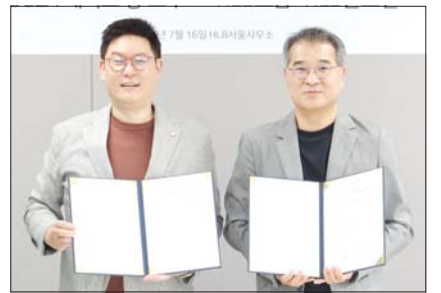
수원 KT 위즈파크에서는 오는 17~20일, 내달 12~14일 진행되는 물놀이 축제 ‘워터 페스티벌’과 연계한 체험존과

셀피존이 운영된다. 관람객은 플립7으로 셀피를 촬영하고 생성형 편집 기능으로 개성 있게 꾸밀 수 있으며, 갤럭시 워치8 시리즈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내달 13일에는 ‘갤럭시 데이’ 특별 응원전도 열린다.

두산 베어스 홈구장인 서울 잠실야구장에서도 오는 23~24일, 내달 26~28일까지 ‘갤럭시 체험존’이 운영된다. 폴드7 디자인을 형상화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구장에서는 구단 마스코트와 함께 플립7의 ‘플렉스캠’으로 셀피를 찍는 ‘승요 셀피’ 프로그램과 QR코드를 활용해 야구 사진을 다운로드·출력할 수 있는 ‘히든 포토 PICK’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HLB글로벌, 의료보조·조리 로봇 개발

HLB글로벌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HLB글로벌 서울사무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테니스 홍 기계항공공학 교수(왼쪽)와 ‘의료 생활보조 및 조리로봇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HLB글로벌



이통3사, V컬러링 2차 기부 캠페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0일까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V컬러링 2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은 캠페인에 참여한 서경덕 교수(왼쪽)와 영상 내레이션에 참여한 류승룡 배우. /KT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원로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권혁홍 전 원로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영수 신임 원로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한영수 원로위원 회장 취임

‘원로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 회장 “책임감 있게 이끌 것”

중소기업중앙회 원로위원회 신임 회장에 한영수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취임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2025 원로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출범한 원로위원회는 중기중앙회 공식 자문기구로 전·현직 중소기업 협동조합 원로 이사장들로 구

성했다. 중소기업 조직 운영과 협동조합 애로 사항 해소 등에 관한 자문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제2·3기 원로위원회장을 역임한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이임과 한 이사장의 제4기 위원회장 선임이 이뤄졌다.

한 회장은 취임사에서 “협동조합계 선배들과 함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CNS,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역량 기반 인사제도 도입
자율 책임 근무제 시행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는 상호 존중과 대화,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LG CNS는 1987년 창립 이후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통해 38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 소통 과정을 거쳐 LG CNS는 근무 기간이 아닌 기술 역량 수준을 보상에 반영하는 역량 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안식월 휴가제 도입, 중식비 인상 등 복지 수준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

LG CNS는 근무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사무

실에 출근해 근무시간을 채워야 하는 획일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자율 책임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회사는 직원들의 경력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 스스로 본인이 희망하는 조직과 직무를 찾아 지원하는 ‘마이커리어업(사내공모제도-잡포스팅)’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현장의 다양한 직무 전문가들이 채용과 평가 등 주요한 인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도 정착됐다. 대표적으로 채용 시 사내 전문가들이 합격·불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바-레이저’ 면접 방식을 운영한다. ‘기술 역량 위원회’에도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해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 인재들을 선발·육성하는 중이다.

/김현정기자 hjk10@



오비맥주, ‘캔크리시 챌린지’ 기부금 전달

오비맥주는 환경 캠페인 ‘2025 캔크리시 챌린지’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협동조합 끌림에 전달하고 폐지수거 어르신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 사회공헌팀 이은아 이사(오른쪽)와 협동조합 끌림 조현경 대표가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광주은행, 치매·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광주은행은 광주 지역 치매 어르신과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 3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치매 노인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4000여 대를 보급하는 데 활용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중앙대, ‘의혈언론인상·언론동문상’ 선정

중앙대학교언론동문회는 ‘2025 제13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성유미(경영06·오른쪽 두번째)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안상현(신문방송07·맨 오른쪽) 조선일보 기자, 이보람(신문방송08·맨 왼쪽) 중앙일보 기자(가나다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중앙언론동문상 특별상’ 수상자로는 이연희(철학86·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중앙대언론동문회

인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서실장 안영훈 △홍보담당관 김영수
- ◆ 국립경국대학교 △도서관장 김중복 △정보통신원장 김희선 △공동실험실습관장 겸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최동혁 △박물관장 겸 역동서원감 천명희

부음

- ▲ 문경재(전 강북경찰서 경감·향년 67세) 씨 별세, 김금자씨 남편상, 문소희·문정미씨 부친상, 박준식(틸사이트 편집국 부국장)·서문성씨 장인상 = 16일 오후 7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19일 오전 5시, 장지 별그리다양평. 02-923-4442

